

▶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하편 ◀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2)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 (25문제)-----1쪽

**6. 문학 너머로**

(1) 도요새에 관한 명상 (46문제)----- 17쪽

(2)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탕자나무였다 (38문제)----- 44쪽

**7. 매듭을 푸는 말과 글**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0문제)----- 67쪽

(2)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23문제)----- 84쪽

**9. 책에서 삶을 찾다**

(1) 가시리 / 속미인곡 (52문제) ----- 102쪽

(2) 춘향전 (46문제)----- 125쪽

(3) 절정 (40문제) ----- 153쪽

**10. 다매체 시대, 가꾸는 국어**

(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62문제)----- 173쪽

(2) 매체와 국어 사랑 (16문제)----- 197쪽

▶빠른 전체 정답-----**208**쪽

▶해설-----**210**쪽

**교재 버전: 2021.06.25**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가시리” 명석 명리

‘가시리잇고’의 축약형으로 ‘가시렵니까’의 의미

## 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하여 이별을 원치 않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함(감정의 고조).

##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위 중추가 대평성덕(大平盛代)

노래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후대에 궁중의 악곡  
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후렴구

▶ [기] 이별의 안타까움(애원과 탄식)

## 승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

어찌

##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1연의 2행을 반복하여 이별의 슬픔과 정한을 강조함.

### 위 중추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승]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애원과 원망의 고조)

## 전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태도

## 선호면 아니 올세라

사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 화자가 임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

### 위 중추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전] 이별의 수용(감정의 절제와 체념)

## 결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① (화자) 사랑하게 하는 임을 보내드리오니(서러움의 주체: 사적 화자)  
②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드리오니(서러움의 주체: '임')  
→ 일반적으로 ①로 해석하지만 ②로 보는 견해도 있음.

##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가시자마자 돌아서서 오십시오

### 위 중추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결] 이별 후의 소망(임이 돌아오기를 바램)

### • 핵심 정리

갈래	가요
성격	서정적, 민요적, 애상적
제지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2조와 3음보의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함.</li> <li>• 한시와 같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li> <li>• 화자의 정서를 간결한 형식에 담아 절묘하게 표현함.</li> <li>•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의 정서를 형상화함.</li> </ul>

### • 구성

1연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 - 애원과 탄식
2연	절박한 심정 - 애원과 원망의 고조
3연	이별의 수용 - 감정의 절제와 체념
4연	이별 후의 소망(재회의 기원)

### • 사상 전개 과정

단계	연	내용	구조의 특징
기	1연	이별의 안타까움, 애원과 탄식	현실 인식
승	2연	절박한 심정(애원의 고조, 안타까움)	감등의 고조
전	3연	이별의 수용(감정의 절제와 체념)	전환
결	4연	이별 후의 소망(재회에 대한 기원)	감등의 해소

### • 「가시리」에 담긴 옛 노래의 전통

내용	한(恨)의 정서를 형상화함.
형식	한 행을 끊어 읽는 단위가 세 마디임. 3음보음
포함	여성적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구성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를 따름.

• 화자의 감동 양상

입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
 
↔

 붙잡는 화자에게 화가 나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후렴구, 어음

후렴구
 

 각 장마다 되풀이되는 구절로, 장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작품에 통일감을 줌.

어음
 

 음보수를 맞추기 위해 삽입된 구절로, 주로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속미인곡” 문맥 정립

5 **서사** **대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저 각시(젊은 여자) 하구나. 하도다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임금이 있는 궁궐을 의미함  
**히 다 더 저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저문 누구를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구절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흥가마는**  
모습, 형체

10 **엇단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너로구나 여기서으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티야 교티야 어저러이 호뎃쎄디)** → 여인 2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락신고**  
얼굴 빛이, 안색이  
**누어 심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15 **(내 몸의 지은 죄 죄 마티 빠혀시니**  
사갈이 쌓였으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탓하라  
**설워 풀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조물주

여인 2는 입과 이별한 처지로,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게 된 작가의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임.

▶ 여인 1의 절문(서사 1) - 백옥경을 떠난 이유

입과 헤어진 이유가 자신의 잘못과 조물주의 탓이라고 함. 즉, 입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숙명으로 돌리는 문명론적 사고관을 지녔음. 한편으로 신하로서 군주를 비판하지 않는 유학자의 자세가 드러남.

▶ 여인 2의 대담(서사 2) - 자책과 한탄

**서사** 입과 이별하게 된 사연

**서사** 입과 이별하게 된 사연

---

**본사** **글란 심각마오 립친 일이 이셔이다**  
수용주  
 ▶ 여인 1의 위로(본사 1) **맞힌**  
**님을 띄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모셨던 적이 있어  
**물 ㄱ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입의 건강을 염려함  
**춘한 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 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띄섯논고**  
밖의 추대어로 궁중에서 이르던 말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띄 네와 ㄱ티 세시논가**  
옛날과 같이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20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어떻게든지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거의 지나갔구나

입에 대한 사랑(충정)을 다하지 못한 점, 입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

입의 일상에 대한 염려

▶ 여인 2의 하소연(본사 2) - 입에 대한 충정

**잠깐 확인**

1. 이 작품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

내 마음 들 뒤 업다 어드러로 가랏 말고

내 마음 들 곳 없다

잡거니 밀거니 높픈 **외회** 올라가니

높은 산계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화재(여인)와 입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당시 임금의 눈을 가리던 조정의 간신들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엿디 보며

해와 달, 임금을 상징

지척(咫尺)을 모라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아주 가까운 거리

출하리 **뜰긔**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 공간 이동, 산 → 물가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는고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 여인 2의 하소연(본사 3)

- 임의 소식을 알고 싶은 마음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추운 장자리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눌** 위하야 **불갓**는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소재,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헤매며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

저근덧 **녁진**(力盡)하야 **뜻**음을 **잠간** 드니

잠시 기운이 다하여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넙**을 보니

화자가 그려온 입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

**옥**(玉) **ㄹ**튼 **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옥 같은 모습(임의 꿈면 모습)

**마음**의 **머근** **말숨** **슬**꺾장 **술**자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숨**인들 **어**이 **혀**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이 작품에 나타난 시어의 상징적 의미

• 구름, 안개: '높은 외에 올라가 입을 보고자 하지만, '구름'과 '안개'가 가로막고 있음. 결국 '구름'은 화자와 입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즉 간신 배나 정적(政敵)을 상징함.

• 바람, 물결: 임에게 가고 싶은데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로 간신배나 정적(政敵)을 상징함.

• 일월: 유일한 존재이고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비춘다는 측면에서 '임금'을 상징함.

**결사**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썩**이로다

흔들린 화자의 쓸쓸한 모습

**출**하리 **식**어디어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 여인 2가 '낙월'을 통해 임을 따르겠다는 소극적 사랑을 노래했다면, 여인 1은 '긔운 비'를 통해 적극적 사랑을 제시하며 위로함.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켜리라

▶ 여인 2의 하소연(결사 1) - 죽어서라도 따르고자 하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손 **비**나 **되**쇼셔

▶ 여인 1의 위로(결사 2) - 긔운비가 되기를 바람.

여인 1의 위로: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

**결사** 죽어서라도 입을 따르고 싶은 화자의 소망

- 『송강가사(松江歌辭)』

• 핵심 정리

<b>감제</b>	가사, 양반 가사, 정적 가사, 유배 가사
<b>성격</b>	서정적, 충신연주지사
<b>형식</b>	대화체, 3(4)·4조, 4음보 연속체
<b>어조</b>	여성적
<b>주제</b>	임금을 그리는 정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함.</li> <li>•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객관화함.</li> <li>• 고사(故事), 한시의 인용이 거의 없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함.</li> <li>•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함.</li> </ul>

• 구성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통해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함.	
<b>서사</b>	임과 이별한 시연
<b>본사</b>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b>결사</b>	죽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임과의 사랑

• 화자 간의 대화 내용

<b>'여인 1'의 질문</b>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	
<b>'여인 2'의 답변</b>	자신을 탓하며 체념함.
↓	
<b>'여인 1'의 위로</b>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위로함.
↓	
<b>'여인 2'의 하소연</b>	임에 대한 충정, 임의 소식에 대한 궁금함, 독수공방의 외로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 등을 하소연함.
↓	
<b>'여인 1'의 권고</b>	'달' 대신 '구준 비(꿇은비)'가 되라고 말함.

• 다양한 시어의 의미

<b>미인</b>	'임'과 함께 '임금', '군주'의 의미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시어
<b>백옥경</b>	임이 계신 곳 → 임금이 계신 한양, 대궐

• 중심 화자와 보조 화자

<b>여인 1</b> (작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화자, 보조 화자)	<b>여인 2</b> (여인 1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중심 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인 2'의 하소연을 유도하고, 작품을 더욱 극적으로 결말짓게 함.</li> <li>• '여인 2'의 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위로와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여인 2'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함.</li> <li>•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인 1'의 질문에 응하여 하소연하면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함.</li> <li>• 사건의 전개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작품의 중심 정서와 주제 구현에 중심 역할을 함.</li> </ul>

• '낙월'과 '구준 비'의 비교

<b>낙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보다 사라짐. 일시적, 소극적, 정서적·공간적 거리가 멀.</li> <li>•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화자의 절망감이 내포됨.</li> </ul>
<b>구준 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랫동안 내리며 임의 옷을 적실만큼 가까이 갈 수 있음. → 적극적, 정서적·공간적으로 밀착됨.</li> <li>•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포됨.</li> </ul>

**구름, 안개** 계신 곳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배 / 정적

**입술** '미인', '임'과 함께 '임금', '군주'의 의미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시어

**벼람, 물결** '물가'까지 가서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화자의 시도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 간신배나 정적

## 모라신 학습 활동

### 1. 「가시리」를 감상하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 (1) 다음에 제시된 시구의 의미와 시구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 보자.

	시구의 의미	화자의 태도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소극적, 순종적, 체념적
잡수와 두어리마는 선한편 아니 올세라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2) 「가시리」의 사상 전개에 따라 느껴지는 화자의 심리와 그렇게 느낀 까닭을 적어 보자.

	화자의 심리	그렇게 느낀 까닭
1연	애원과 탄식	뜻밖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원망, 안타까 움과 탄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2연	애원의 고조, 원망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원망의 심정 이 고조되고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3연	감정의 절제와 체념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4연	소망과 기원	이별 후에 곧바로 임이 돌아오기를 간절 히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 2. 「속미인곡」을 감상하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 (1) 「속미인곡」은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노래이다. 두 여인의 대화 형식에 유의하면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여인 1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여인 2의 답변	자신의 죄와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함.
여인 1의 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함.
여인 2의 하소연	임에 대한 충정과 임의 소식을 알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 독수공방의 애달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 등을 하소연함.
여인 1의 조언	달 대신 비가 되라고 말해 줌.

(2) 「속미인곡」은 임금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충신연주지사’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 시어들의 의미를 탐구해 보자.

	작품 속 의미
미인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 임금, 군주(君主)
백옥경	임금이 있는 한양 또는 대궐
임	임금, 군주(君主)
구름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

3. 「가시리」와 「속미인곡」에 나타난 우리 노래 문학의 전통적 특징 중 하나인 여성적 어조의 전통을 탐구해 보자.

(1) 두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어조를 중심으로 「가시리」와 「속미인곡」을 비교해 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의 어조
「가시리」	임이 떠나려는 상황(임과 이별하려는 상황)	여성적 어조
「속미인곡」	임과 이별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	여성적 어조

(2) 다음의 설명을 바탕으로 「속미인곡」의 작가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가) 정치적으로 실패한 신하가 임금에 대한 분노나 울분을 직접 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은 불행한 궁중의 여인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은유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불행한 여성을 상상 속에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비극적 심정을 대리로 발산하는 방법이다.  
-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 (나) 「속미인곡」은 정철이 1585년에 당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밀려나 낙향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정철은 이 작품을 통해 임금인 선조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절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표현하기 어렵고, 남성의 목소리로는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작가는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임금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독자의 폭넓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4. 다음 작품을 「가시리」와 비교하여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전통을 탐구해 보자.

<b>먼 후일</b>	김소월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있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9-(1) 가시리 / 속미인곡

(1) 두 작품을 형식과 내용 면을 나누어서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형식적 특성		「가시리」, 「먼 후일」	내용적 특성	
같이 읽는 마디 수	3		이별의 상황 (임과 이별하려는 상황과임과 이별한 상황)	화자가 처한 상황
반복되는 표현	“가시리” “잊었노라.”		이별의 정한과 애상 “	화자의 정서

2) 두 작품의 화자의 비슷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대중가요를 찾아보고, 노래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하였는지 말해 보자.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 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끝까지 붙잡을 거야  
어디도 가지 못하게

- 2 에이엠(AM), 「죽어도 못 보내」에서

- 앞에 제시된 두 작품과 위의 대중가요의 화자 모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로 대중가요와 같은 후대의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후대의 대중가요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면서 임을 보내지 않겠다는 적극적 태도와 의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위 증즐가 대평성디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  
 - 「가시리」

(나)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잇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잇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잇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잇고  
 먼 훗날 그때에 “잇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가락고등학교 (서울)**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음보의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 ② 여성적 목소리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민족의 정서적 정서인 한(恨)의 정서를 형상화하였다.
- ④ 화자의 정서를 간결한 형식에 담아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 ⑤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향찰(鄕札)로 표기되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가)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비 갠 독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 정지상, 「송인」
- 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두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량성 알라리 알리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③ 백설(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梅花)는 어니 곳에 희엿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셔 갈 곳 몰라 호노라.  
 - 이색
- ④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  
 다.  
 갑 업슨 청풍(靑風)이오, 임자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으  
 리라.  
 - 성혼
- ⑤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들져귀 수들져귀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  
 (窓)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 작자 미상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연을 분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해 준다.
- ③ 작품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운율을 형성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 송축(頌祝)의 내용을 첨가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띄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 모두 공통적으로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
- ④ (가)는 '가시리'를, (나)는 '잇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현실에 순응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나)의 화자는 현실을 거부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5. (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드러난 부분을 (가)에서 찾아 한 행으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는 데 각지 본 듯도 흥더이고  
 텨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햐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데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 즉흥가마는  
 었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굳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흥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투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뵈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그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 고열(春寒苦熱)은 었디햐야 디내시며

츨일동텨(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뵈 네와 궂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좁은 었디 자시논고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흥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무옴 둘 디 었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루거든 천 리(千里)를 부라보라  
 출하리 물궂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흥니  
 부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논고  
 강텨(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흥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햐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뎡 녀진(力盡)햐야 꾀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햐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 그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셰라  
 무옴의 머근 말슴 슬궂장 솟쟈 흥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흥며  
 정(情)을 못다 햐야 목이조차 메여흥니  
 오던뎡 계성(鷄聲)의 좁은 었디 씨뎡뎡고  
 여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부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쉼이로다  
 [A] 출하리 식여디며 낙월(落月)이나 뵈야 이셔  
 님 거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죄리라  
 각시님 돌이야쿠니와 구즌비나 뵈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가락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시상 전개에 주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중심 인물과 보조 인물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의 경험과 고사(故事)를 연관 지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                |
|-------------|----------------|
| 여인 1의<br>질문 |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
|-------------|----------------|
- ↓
- ②
- |             |                          |
|-------------|--------------------------|
| 여인 2의<br>답변 | 자신의 죄와 임의 변심 탓이라고<br>대답함 |
|-------------|--------------------------|
- ↓
- ③
- |             |                  |
|-------------|------------------|
| 여인 1의<br>위로 |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함 |
|-------------|------------------|
- ↓
- ④
- |              |   |
|--------------|---|
| 여인 2의<br>하소연 | 임에 대한 염려와 임의 소식을 알고<br>싶은 안타까운 심정, 독수공방의<br>애달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br>정 등을 하소연함 |
|--------------|---|
- ↓
- ⑤
- |             |                  |
|-------------|------------------|
| 여인 1의<br>조언 | 달 대신 비가 되라고 말해 줌 |
|-------------|------------------|

**가락고등학교 (서울)**

8.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임이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자세가 드러나는군.
- ② ㉡ : 임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임을 곁에서 보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군.
- ③ ㉢ : '구름'과 '안개'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또는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배로, '부람', '물결'도 이와 유사한 의미의 시어로군.
- ④ ㉣ : '꿈'은 화자가 그리운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자는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나 안도감을 느끼는군.
- ⑤ ㉣ : 홀로 된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외로움의 심경이 드러나는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9. 윗글에 나오는 어휘와 뜻을 연결한 것 중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괴암죽 - 미움받음직  
 ㄴ. 춘한 고열(春寒苦熱) - 이른 봄의 추위와 여름철의 괴로운 더위  
 ㄷ. 모침 : 기와로 지붕을 이은 집  
 ㄹ. 오던된 계성(鷄聲) -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ㅁ. 식여디여 - 죽어져서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가락고등학교 (서울)**

10.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흐르도 열두 재 흐 돌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마리 이 시름 닛자 하니  
 무옴의 미쳐 이셔 골수(骨髓)\*의 췌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을 엇디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미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흐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중에서

\*골수(骨髓) : 뼈속  
 \*췌터시니 : 사무쳤으니  
 \*편작(扁鵲) : 중국 춘추 시대의 명의. 여기서는 뛰어난 의사를 가리킴  
 \*곳나모 : 꽃나무  
 \*놀애 : 날개

- ① <보기>와 달리 [A]에는 자신을 희화화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보조 화자가 중심 화자에게 위로를 건네는 형식이다.
- ③ [A]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A]와 <보기>는 모두 동일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의 화자 모두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춘향전」의 문학적 전통



- (1) 고전 소설은 권선징악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일반적임.  
→ 현실에서 고통 받는 대다수 독자들의 희망이 반영된 까닭임.
- (2)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임금으로부터 정렬부인의 칭호를 받고, 자식들이 자자손손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후일담으로 끝을 맺음.

• 인용된 한시(어사또의 시)의 기능

<b>형식</b>	칠언 절구	<b>표현</b>	대구법, 은유법
<b>주제</b>	부패한 탐관오리의 학정에 대한 비판과 풍자		
<b>기능</b>	①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고 현실 상황을 풍자 비판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사건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새로운 사건 전개를 예고함.		
	<b>보조 관념</b>		<b>원관념</b>
	술		일만 백성의 피
	안주		일만 백성의 기름
	춧눈		백성의 눈물
	노랫소리		백성의 원망 소리

• 다양한 표현법의 사용

- 일기법**
  - 암행어사가 출두한 상황에서 황급히 도망다니는 각 읍 수령들의 움직임을 묘사한 부분
  - 운봉 영장이 어사 출두를 눈치채고 관아의 여러 담당자들을 단속하는 부분
- 대구법**
  - 어사또의 한시 부분
  -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 반복법**
  -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 과장법**
  -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 언어유치**
  -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
  -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 「춘향전」의 서사 구조와 결말의 특징

<b>「춘향전」의 서사 구조</b>	
<b>‘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중심으로</b>	만남 → 이별 → 재회
<b>‘춘향’과 ‘변 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b>	수난 → 저항 → 극복

## 모티브 학습 활동

1. 다음을 참고하여 「춘향전」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b>⊕ ‘이몽룡’과 ‘춘향’의 관계를 중심으로</b>	<b>⊖ ‘춘향’과 ‘변 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b>
춘향과 이몽룡의 변치 않는 사랑	신분적 구속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 탐관오리(지배계층)의 횡포에 대한 비판과 저항(부패한 관리에 대한 하층민의 항거) 등

2. 가, 나 를 중심으로 「춘향전」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해 보자.

- (가)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
- (나)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케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생쥐 눈 뜯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권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달으니,

(1) 가와 나에 드러난 표현의 의도와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비꼬아서 표현하는 풍자와 해학의 표현을 통해, 걸인이 된 몽룡과 암행어사 출두로 허둥대는 수령, 본관 사또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나)는 수령과 본관 사또의 부정적 행실, 모순을 빗대어 비웃음으로써 비판하고 있다

**3. 다음은 풍정안뜰곡의 기상 인타부 내용이다. 질문에 대답하면서 작품 내용을 정리해 보자.**



**옥룡에서 걸인이 되어 나타난 이몽룡을 봤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나요?**

**준환**

그토록 그리워하던 임을 만났기에 매우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던 임이 걸인이 되어 나타난 것을 보니 그 기대와 희망이 무너졌고,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홀로 남게 된 어머니가 걱정되었으며, 제 처지와 신세가 참으로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본관 사또 생일날, 화려한 잔치를 보고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나요?**

**몽룡**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사또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일잔치를 화려하게 여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도했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나요?**

**변 사또**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할 만큼 당황했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과 춘향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나요?**

**마을 주민**

춘향의 처지가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몽룡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낸 춘향이 값진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4. 다음 작품을 「춘향전」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표현상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탐구해 보자.**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 멋하러 오나? 돈 달라러 오지?” /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 “종학이 늬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영덩이를 꿩 쪼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은 식구가 제가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중략]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 그런 처 죽일 늬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늬이! 그늬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관 사회주의 허다가 뎨다 경찰서에 췌혀? 으응? …… 오사육시를 헐 늬이, 그늬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잣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폐에 들어? …….”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감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폐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요……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낚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멍멍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폐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

- 채만식, 「태평천하」에서

**(1) 「춘향전」의 다음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 「대명전하」에서도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 적어 보자.**

「춘향전」	「대명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고애고 설위 울 제, 맥이 빠져 반생반사(半生半死)하는구나.</li> <li>•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동덩실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 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li> <li>•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li> <li>•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꿩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li> </ul>

**(2) 「춘향전」과 「대명전하」의 서술자가 등장인물(본관 사또, 윤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한국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이 어지고 변화하였는지 말해 보자.**

두 작품의 서술자는 본관 사또, 윤 직원과 같은 비판적인 인물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표현하여 비판적 웃음을 자아내는 풍자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풍자의 전통은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 「봉산 탈춤」과 같은 가면극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소설, 영화, 개그 프로그램 등에서도 계승, 향유되고 있다.

## 문제 탐구 문제

1. “갈비 한 대 먹고지고.”에 드러난 표현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 어사또(이몽룡)가 지은 시를 본 운봉 영장이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

한시의 내용을 보고 어사또가 암행어사임과, 곧 암행어사 출두가 일어날 것임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금명간 죽을 년이 세간 두어 무엇 할까. 용장룡, 봉장룡, 빼달이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별찬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이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 듯이 섬기소서.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내일이 본관 사또 생신이라. 술에 취해 주정 나면 나를 올려 칠 것이니 형장 맞은 다리 장독(杖毒)이 났으니 수족인들 놀릴쏜가. 치령치령 흐트러진 머리 이력저력 걷어 엮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곤장 맞고 죽거들랑 샳꾼인 제 달려들어 둘러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 적막하고 고요한 데 뉘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벼슬에 오르거든 잠시오 지체 말고 육진장포로 다시 염습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러니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성으로 올라다가 선산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춘향 지묘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올까. 맺힌 한이나 풀어 주오. 애고애고 내 신세야.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하릴없이 걸인 되어 이 집 저 집 걸식타가 언덕 밑에 조속 조속 졸면서 기운 다해 죽게 되면 지리산 갈가마귀 두 날개를 딱 벌리고 동덩실 날아들어 까옥까옥 두 눈을 다 파 먹은들 어느 자식 있어 '후여!' 하고 날려 주리.

<중략>

이렇듯 요란할 제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동덩실 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우리 사또님이 걸인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宦)인가.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사또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마는’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어사도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듚시라고 하여라.”

어사도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 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닳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중략>

“걸인이 어려서 한시(漢詩)까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한 수 하사이다.”

운봉 영장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글 두 귀를 지었오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중략>

공방 불러 돛자리 단속, 병방 불러 역마(驛馬)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상 단속, 옥형방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刑具) 단속, 형방 불러 장부 단속, 사령 불러 속직 단속. 한참 이리 요란할 제 사정 모르는 저 본관 사또가,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 보고 들어오오.”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역을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올망건 공단 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 고의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도야.”

<중략>

“애고 박 터졌네.”

좌수(座首), 별감(別監) 녀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괘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

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㉔“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 나 죽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옮겨라.”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이오.”

사대문(四大門)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 줄새,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러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 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㉕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 작자 미상, '춘향전(春香傳)' -

- ㉑ ㉓ - 오늘이나 내일 사이, 곧
- ㉒ ㉔ - 시신을 씻긴 뒤 수위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 ㉓ ㉕ - 옷 따위가 남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함
- ㉔ ㉖ -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고 굵은 줄
- ㉕ ㉗ - 민속 음악에서 쓰는 가장 빠른 장단

**동북고등학교 (서울)**

2. (가)의 밑줄 친 ㉑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㉑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蝦洞)에 흘러 드리./ 반천 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래뿐리로다./ 아히야, 고국 흥망(故國興亡)을 무려 못엇하리오. - 정도전 -
- ㉒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하는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뉘 따해 낫다니. - 성삼문 -
- ㉓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 듯 불고 간 디 업다./ 저근덧 바라다가 마리 우희 불니고져/ 귀 밋테 해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하노라. - 우탁 -
- ㉔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남자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업시 늙으리라. - 성혼 -
- ㉕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들길이 무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호노라.

**동북고등학교 (서울)**

1. (가)의 밑줄 친 ㉔~㉖의 뜻 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동북고등학교 (서울)**

3. (가)를 읽고, (1)㉠의 밑줄 친 ‘천인혈(千人血)’, ‘만성고(萬姓膏)’의 상징적 의미를 2어절로 쓰고, (2)밑줄 친 ㉡에 드러난 언어유희의 유형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 땅의 기생 월매와 성 참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어려서부터 용모와 재주가 뛰어났다. 춘향이 열여섯이 되던 해,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단옷날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백 년가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춘향은 새로 부임한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 고초를 겪고 옥에 갇히고 만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춘향을 만나러 남원으로 내려온다.

(가)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어찌 오셨소. 뭍살 딸자식을 생각하여 천방지축으로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다음부터는 오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님을 만나 온갖 회포 나누었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공문 왔소?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결에 보던 님을 생시에 본다는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겁하며,  
 “애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그토록 그린 님을 이리 쉽게 만날쏜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님 그리워 오래도록 한이더니, 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는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님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라.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在天)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나) 애고애고 설워 올 때,  
 어사또,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 설워하느냐.”  
 작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지.  
 춘향은 어둠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제 대체로 공평하간만 나의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청춘에 님 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운 이 형장 무슨 일이고.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 없이 님 오시기만 바라더니 이제는 님의 얼굴 보았으나 희망 없이 되었구나. 죽어 황천에 돌아간들 옥항님께 무슨 말을 자랑하리.”  
 애고애고 설워 올 제, 맥이 빠져 반생반사(半生半死)하느구나.  
 (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원편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는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리라. 옥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禮房)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잡인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동덩실 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우리 사또님이 걸인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宦)인가.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

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사또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마는’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어사 속으로

“오나.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습시라고 하여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답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 가는데, ㉠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대 먹고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이 어려서 한시(漢詩)까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한 수 하사이다.”

운봉 영장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A]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라)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역을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올망건 공단 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 고의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도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靑天)에 진동하고, <중략>

좌수(座首), 별감(別監) 낮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괘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 쥐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딱.

“애고 나 죽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옮겨라.”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이오.”

(마) 사대문(四大門)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 줄새,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쭙으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뢰되,



# “땀땀” 문맥 정리

·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일제의 탄압과 시련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화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존재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극한 상황수평적 한계      쫓겨 올 수밖에 없는 상황  
 ▶ 1연: 현실적 한계 상황(수평적)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북방(수평적 한계)에 대비 - 극한 상황(수직적)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질막한 상황에서의 대결 정신  
 고원에서도 가장 높은 곳      ▶ 2연: 현실적 한계 상황(수직적)  
 - 가장 극한 상황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질막한 상황  
**한 발 채겨 디딜 곳조차 없다.** ▶ 3연: 극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벼랑 끝과 같은 가장 극한 상황으로 몰려서려고 해도  
 도무지 물러설 여지가 없는 한계 상황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정신적 초극의 태도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한 역설적 표현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역설적)  
 역설을 통한 초극 의지      관조를 통한 극한 상황의 초극 의지  
 ▶ 4연: 질막한 극한 상황에서의 초극 의지

기  
 ↓  
 승  
 ↓  
 전  
 ↓  
 결

역설적  
 · 차갑  
 이미  
 · 혹독

·핵심 정리

<b>갈래</b>	, 서정시
<b>성격</b>	지시적, 상징적, 의지적
<b>운율</b>	내재율
<b>어조</b>	남성적 어조, 비장하고 절제된 의지적 어조
<b>제재</b>	현실의 극한 상황
<b>주제</b>	극한 상황에 대한 초극 의지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의 구성 방식인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함.</li> <li>· 생략과 압축을 통해 지시적 기개를 드러냄.</li> <li>· 역설적 깨달음을 통해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함.</li> </ul>

·구성

<b>1연</b>	'매운 계절(겨울)'에 쫓겨 북방으로 물림. (수난의 현실)
<b>2연</b>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함(수난의 고조)
<b>3연</b>	한발 비껴 설 공간도 없는 극한 상황(극한의 인식)
<b>4연</b>	겨울에 대한 새로운 인식(초월을 통한 극복)

·사상 전개 방식

<b>기</b>	북방: 수평적 공간의 한계	<b>극한적 상황</b>
<b>승</b>	고원: 수직적 공간의 한계	
<b>전</b>	건디기 힘든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	<b>화자의 인식</b>
<b>결</b>	극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상징적 시어

<b>매운 계절</b>	겨울. '매운'이라는 감각어와 제시되어 계절의 혹독함과 냉혹함을 강조함.
<b>북방</b>	화자가 처한 수평적 한계 상황
<b>고원</b>	화자가 처한 수직적 한계 상황
<b>서릿발</b>	'칼날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화자의 운신 범위가 넓지 않음을 강조함.

•역설적 인식과 초극의 의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 : 차가움, 냉혹함, 비정함, 완고함 등의 속성을 지님.
- 무지개: 환상, 희망, 아름다움, 덧없음 등의 속성을 지님.



- 모순된 이미지의 결합 역설적 표현
-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화자의 초극 의지를 강조함.

•시의 의미 구조

**화자의 상황 (1, 2연)** 극한 상황의 점층적 고조  
북방 →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

**화자의 인식 (3, 4연)** 상황의 정리('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내면으로의 전환('눈 감아 생각')  
→ 새로운 상황 인식(겨울=강철로 된 무지개)

## 모티브인 막춤 탐구

### 1. 이 시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고, 함축적 의미를 말해 보자.

	시어	함축적 의미
시간적 배경	매운 계절의 채찍, 겨울	일제 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
공간적 배경	북방,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	최고로 극한적인 위기 상황

(2)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음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시어	이미지	의미
겨울	차다, 춥다	저는 '겨울'이 차가운 이미지를 갖는 만큼,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강철	차다, 단단하다, 비정하다, 금속성	저는 '강철'이 무지개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만큼, 차가움과 비정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개	환상적이다, 아름답다, 부드럽다, 희망	저는 무지개가 환상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만큼,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는 희망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는……  
극한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비극적 상황에 대한 초극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

(3) (1)과 (2)에서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의 주제를 말해 보자.

극한 상황의 초월 의지

**2. 가, 나를 읽고, 「절정」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전통을 탐구해 보자.**

(가) 「절정」은 한시에서 시구를 구성하고 전개하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방식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는 제1구인 기(起)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제2구인 승(承)에서 그것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며 제3구인 전(轉)에서 장면과 사상을 새롭게 전환하고 제4구인 결(結)에서 전체를 묶어 시상을 마무리 짓는다.

(나)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될고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峰)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서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흐리리라  
 - 성삼문

- **낙락장송**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 **만건곤** 하늘과 땅에 가득함.
- **독야청청**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가)를 바탕으로 「절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정리해 보고, 한국 문학 전통을 형식적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기	시련에 부딪혀 북방으로 밀려옴. (수평적 한계 상황)
승	화자가 쫓겨 간 북방의 상황(수직적 한계 상황)
전	극한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
결	극한 상황에서의 초극 의지



(가)에 나타난 형식적 측면의 한국 문학의 전통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방식

**3.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한국 문학의 면모를 살펴보자.**

[앞부분 줄거리]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는 6.25 전쟁에 참전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바람이 나서 마중을 나간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잃고 나타난 진수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비통해한다.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디.”  
 “수류탄 쪼가리에?”  
 “예.”  
 “음…….”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땀에 군의관이 잘라 버립디더. 병원에서.”  
 “…….”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디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능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 노니 칫째 걸어 땡기기에 불편해서 푹 죽겠습디.”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땡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렇까예?”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땡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9-(3) 절정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서 지그시 웃어 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한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 손에 모아 쥐고 다른 손으로는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 든다.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 흩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펍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거다.”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찢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꺾!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위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왔을 건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 하근찬, 「수난 이대」에서

(1) 위 소설의 등장인물이 겪는 시련과 그 사건의 배경을 정리해 보자.

	시련	사건 배경
만도	한쪽 팔을 잃음.	일제 강점기
진수	한쪽 다리를 잃음.	6.25 전쟁

(2) (1)에서의 시련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외나무다리’와 연결 지어 말해 보자.

한쪽 팔을 잃은 만도가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넌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여 살아가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위 소설을 중심으로, 역사와 시대 상황에 관한 문맥의 대응 방식을 설명해 보자.

문학은 암울한 시대 현실을 사실적이고도 진실에 가깝게 그리면서, 수난의 역사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염원하며 기원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B]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C]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D]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나)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될고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峰)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  
야 이셔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  
리라.

- 성삼문 -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맞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사  
육신 중 한 명

**동북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중 (가)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 있군.
- ② [A]에서 [B]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은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화자의 극한 상황과 대응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가 보여준 '무릎을 꿇'는 행위에서 현실 도피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어.
- ④ [A]와 [B]에서는 화자의 외적 상황이 제시되고, [C]에서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⑤ [D]에서 자신의 상황을 관조하던 화자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어.

**동북고등학교 (서울)**

2. (가)와 (나)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의 화자는 지사적(志士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나)와 달리 '자문자답'을 통하여 자신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다.
- ③ (가)는 '칼날'을, (나)는 '낙락장송'을 통해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을 형상화한다.
- ④ (가)는 상충되는 이미지의 대립으로, (나)는 강렬한 색채의 대비로 주제의식을 부각시킨다.
- ⑤ (가)의 '고원'과 (나)의 '봉래산 제일봉'에 나타나는 수직적 이미지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는 6.25 전쟁에 참전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바람이 나서 마중을 나간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잃고 나타난 진수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비통해한다.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십니교,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심더.”

“수류탄 쪼가리에?”

“예.”

“음…….”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땀에 군의관이 잘라 버립디더, 병원에서.”

“…….”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능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 노니 첫째 걸어 땡기기에 불편해서 툭 죽겠습디.”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땡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렇까예?”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땡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중략>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질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 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펍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찡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후략>

- 하근찬, '수난 이대' -

**동북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로, 인물이 신체적 불구가 된 원인이 개인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 ② ㉡ -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향토적 분위기와 함께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③ ㉢ - 대화를 통한 인물 제시 방법으로, 만도의 의지적이고도 낙천적인 성격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 ④ ㉡ -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소재로, 역경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주제가 나타난다.
- ⑤ ㉢ - 수난의 역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동북고등학교 (서울)**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을 결합시켜 그것을 부자 2대의 육체적·정신적 상처로 연결시킴으로써 수난의 역사가 어떻게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부자의 삶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수난이 한순간의 일회적인 비극이 아니라 민족의 공통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① 만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진수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를 상징한다.
- ② 작가는 우리 민족이 마주한 상처가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에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 ③ 진수가 ‘우째 살까 싶’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받은 정신적 상처라고 할 수 있다.
- ④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는 표현에서 작가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윗글은 시대 현실을 가깝게 그려낸다는 문학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나)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 그래 댕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댕심니꼬.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  
 심더.”  
 “수류탄 쪼가리에?”  
 “예.”  
 “음…….”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땀에 군의관이 짤라  
 버럽디더. 병원에서예.”  
 “…….”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 사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  
 리가 없어도니 첫째 걸어 땀기기에 불편해서 툭 죽겠심  
 더.”  
 “아아, 안 그렇다. 걸어땀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  
 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렇개예?”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땀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  
 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서 지그시 웃어 주었

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뭍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부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쇼.”  
 한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순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불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 쥐  
 고, 다른 손으로는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불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 든  
 다.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  
 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  
 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  
 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  
 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져서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  
 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  
 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르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까. 자아, 이거 받  
 아라.”  
 고등어 뭍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  
 진수는 펍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  
 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찌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목줄기를 부둥  
 쉼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공!’ 하고 일어났  
 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  
 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  
 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퐁이다 퐁.’ 이런 소  
 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  
 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껴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왔을  
 깰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  
 보고 있었다.

**한광고등학교 (경기)**

5. ㉠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한자성어는?

- ① 건곤일척(乾坤一擲)    ② 백척간두(百尺竿頭)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분기탱천(憤氣撐天)

**한광고등학교 (경기)**

6. ㉡에 쓰인 표현 기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 ③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④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 니
- ⑤ 알맞은 자리, 저만치 위익(威儀)있는 송덕비 위로 맵고 도 쓴 시간이 흘러가고....

**한광고등학교 (경기)**

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말 부분을 통해 작가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만도'와 '진수' 부자의 삶은 실제 우리 사회의 처절했던 삶을 상징하고 있다.
- ③ 불구가 된 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근대사에서 불행했던 두 시대를 그려내고 있다.
- ④ 이 소설의 내용은 허구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인물의 대사에 방언을 사용하여 문학이 당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광고등학교 (경기)**

8.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나)는 인간소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② (가)는 역사적 상황의 비극성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나)는 개인의 비극적 운명에 국한해서 전개되고 있다.
- ③ 두 작품 모두 부조리한 현실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두 작품 모두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희망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 ⑤ 두 작품 모두 수난의 역사 속에 전쟁의 비극성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정원고등학교 (서울)**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② '기 - 승 - 전 - 결'이라는 한시의 구성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 ③ 화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점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④ 화자는 현실의 한계 상황을 내면의 정신력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
- ⑤ 과거형 종결어미 사용으로 두려움은 이미 지나갔다는 용기를 강조하고 있다.

#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문법 요소

## 1 높임 표현

• **높임법**: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

<b>상대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li> <li>•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며, 격식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해요체, 해체)로 나뉨.</li> </ul>
<b>주체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li> <li>•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잡수시다, 주무시다 등)를 사용하기도 함.</li> <li>•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기도 함.</li> </ul>
<b>객체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li> <li>•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모시다, 뵈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 여쭙다 등)를 통해 실현됨.</li> <li>•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 2 시간 표현

• **시간 표현**: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요소로, 국어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음.

•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뉨.

종류	개념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b>과거 시제</b>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았- / -었-, -았었- / -었었-, -더-	• 동사: -(으)ㄴ, -던 • 형용사: -던	어제, 아까 등
<b>현재 시제</b>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 동사: -는- / -ㄴ- -	• 동사: -는 • 형용사: -(으)ㄴ	오늘, 지금 등
<b>미래 시제</b>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겠-, -(으)리-	-(으)ㄹ	내일, 곧 등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뉨.

<b>진행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li> <li>• ‘-고 있다’, ‘-어(아)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li> </ul>
<b>완료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의 완료를 나타냄.</li> <li>• ‘-어(아) 버리다’, ‘-어(아) 있다’, ‘-어(아) 놓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li> </ul>

## 3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

<b>- 는 - / -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제를 표현함.</li> <li>•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음.</li> <li>•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li> </ul>
<b>-았- / -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시제를 표현함.</li> <li>•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li> <li>•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음.</li> </ul>
<b>- 겠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시제를 표현함.</li> <li>•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음.</li> <li>•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음.</li> </ul>

#### 4 피동 표현

-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피동 표현의 형성 방법**: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들거나, ‘-되다’, ‘-어지다’, ‘-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냄.

####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표현 효과)

-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함.
-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

- **피동 표현의 오용**: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표현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함.

<b>이중 피동 표현</b>	피동사나 ‘-어지다’, ‘-게 되다’ 등의 표현을 두 개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표현 예) 나뉘어지다(나누- + -이- + -어지다)
<b>불필요한 피동 표현</b>	능동 표현을 사용해야 국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번역 투의 영향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예)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 5 인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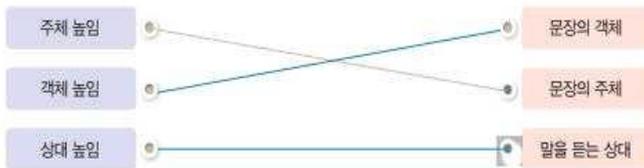
-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으로, 전달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뉨.

<b>직접 인용</b>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라고’를 사용함.
<b>간접 인용</b>	조사 ‘고’를 사용함.

## 모라신 학습 활동

1.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각각의 높임 표현을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과 연결해 보자.



(2)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에 따라 시제를 적어 보자.



10-(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3) 다음 문장은 각각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설명해 보자.

«그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1)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를 붙이는 방식  
 (2) 능동사의 어간에 '-되다 / -어지다 / -게 되다'를 붙이는 방식

.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가 연락을 해 왔다.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를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 '소식이 끊겼던' 의 '끊겼던'을 형태소 분석을 해 보면 '끊-, -기-, -었-, -던'으로 분석된다. 여기의 '-기-'가 피동 접미사로 능동사 '끊다'를 피동사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떡볶이를 먹고 나서 모두 돈이 없다고 하여 내가 돈을 전부 내게 되었다.

능동사의 어간에 '-게 되다'를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 능동사 '내다'의 어간 '내-'에 '-게 되다'가 붙어 피동 표현을 만들어 주고 있다.

(4) 인용 표현의 종류에 따른 표시 방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큰따옴표의 사용 여부	인용절을 다음에 쓰는 조사
직접 인용	사용함	라고
간접 인용	사용하지 않음	고

2. 다음 대화를 읽고 높임 표현 및 시간 표현과 관련된 활동을 해 보자.

민지 선생님, 점심 잡수셨어요?  
 선생님 응, 먹었지. 너희도 먹었지?  
 태현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왜? 무슨 일 있니?  
 태현 네, 저…… 선생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선생님 동아리? 뭐까? ○ 얘기가 좀 길어지겠구나. 우선 좀 앉으렴.  
 태현, 민지 감사합니다!  
 민지 곧 겨울방학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방학이 되면 지금보다 ○ 시간이 좀 더 많  
 아질 것이니 방학 중 동아리 활동을 계획해 보려고요.  
 선생님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 어떤 계획을 세워 보려고?  
 태현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 연결을 해서 외부 활동을 해 보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데, 저희가 아는 곳이 별로 없어서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알아보고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는 거니?  
 태현 네, 선생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선생님 그래, ○ 선생님도 알아볼 테니까 너희들도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좀 더  
 알아보렴. 그리고 나서 동아리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곳을 골라 보자.  
 태현, 민지 감사합니다!

(1) 태현이의 다음 발화에 주제 높임과 객체 높임 중 어떤 것이 쓰였는지,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하였는지 적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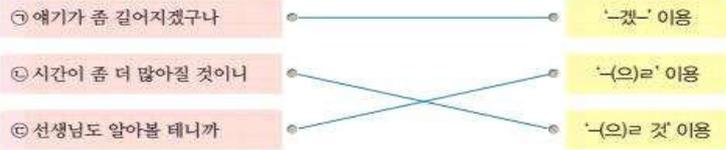
발화	사용된 높임 표현	실현 방법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임.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객체 높임	부사격 조사 '께'와 '말씀드리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
부탁 좀 드리려고요.	객체 높임	'드리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

(2) 민지의 발화는 상대 높임의 종류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말해 보자.

상대 높임의 비격식체 중 해요체에 속한다.

10-(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3) 다음 발화는 어떤 방법으로 미래 시제가 실현되었는지 연결해 보자.



3.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알맞게 고쳐 보고, 그렇게 고쳐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모여진 성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4. 다음 인용 표현에서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자.

- 알맞게 고친 것: 모여진 → 모인, 쓰여질 → 쓰일
- 그렇게 고친 까닭: '모여진'과 '쓰여질' 모두 불필요하게 쓰인 피동 표현이기 때문이다. '모여진'은 '모으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피동사가 된 후 여기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하였고, '쓰여질'은 '쓰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후 여기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이중 피동이다. 이러한 이중 피동은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번역 투 문장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1) 우리 아빠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아빠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

(2) 엄마가 오늘 저녁은 근사한 데 가서 외식하자고 말씀하셨어.  
엄마가 "오늘 저녁은 근사한 데 가서 외식하자."라고 말씀하셨어.

5. 다음 두 대화 상황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가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  
희연이가 지원이에게 심한 장난을 쳐서, 지원이가 잔뜩 화나 있는 상황

희연: 야,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지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희연: 이제 그만 좀 하고, 네 형광펜 좀 빌려줄래?  
지원: 너 정말…….

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  
희연이가 지원이에게 심한 장난을 쳐서, 지원이가 화가 났다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

희연: 지원아, 미안해. 난 네가 좋아서 그런 거였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지원: 응,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희연: 고마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분도 생각하고 행동해야겠어. 그런데, 형광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지원: 응, 여기 있어.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1) 가와 나 중에서 희연이가 사과와 부탁이라는 대화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큰 것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나)

(2)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1)과 같이 판단한 까닭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가	나
청자의 상황과 태도	지원이가 잔뜩 화가 나 있음	지원이가 화가 났다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
희연의 말하기 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았으며 말투가 정중하지 않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며 말투가 정중함.

6. 다음 희곡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 이 황아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때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 뿔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니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거예요.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동안 ㉢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촌장님두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밭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요?  
 촌장: 저쪽요, 저쪽. 짙레 덩굴 밀이던가요…….  
 나: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냐?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는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나?  
 - 이강백, 「파수꾼」에서

(1) ‘촌장’이 ‘나’와 ‘다’를 대할 때 보이는 높임 표현의 차이를 찾고, 그 까닭을 추측해 보자.

촌장은 파수꾼 ‘나’에게 주체 높임 표현(많아지셨군요), 객체 높임 표현(뵈지 못했더니), 상대 높임 표현 중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모두 사용하면서 파수꾼 ‘나’를 높이고 있다. 반면, 촌장이 파수꾼 ‘다’와 이야기할 때에는 상대 높임 중 주로 해라체를 사용함으로써 파수꾼 ‘다’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높임 표현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파수꾼 ‘나’는 촌장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고, 파수꾼 ‘다’는 촌장보다 어리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 ㉠과 ㉡의 시제 표현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실현하였는지 적어 보자.

	시제 표현	이용한 방법
㉠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함.
㉡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한 ‘-(으)르 것’을 사용함.

(3) ㉢은 무엇이 결합하여 실현된 피동 표현인지 밑줄 친 부분에 적어 보고, 이를 능동문으로 바꾸어 보자.

㉢	깔 + 리 + 어 = 깔리어 → 깔려
㉢의 능동문	뿔을 깔아 놓았고

(4) ㉣은 어떤 높임법이 사용된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말해 보자.

- 사용된 높임법: 주체 높임 표현 중 간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 그렇게 판단한 까닭: ㉣의 ‘많으시다’는 ‘많다’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 만든 표현으로, 이 문장의 주체는 ‘흰머리’이다. 그러나 ‘흰머리’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로 높이는 대상은 흰머리의 주인인 파수꾼 ‘나’이므로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서술한 것을 고르면?**

- ①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격식 있는 문체가 된다.
- ②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③ ‘철수가 만든 장난감을 강아지가 부수어 버렸다.’에서 ‘만든’의 ‘-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버렸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④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 ⑤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 표현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2. 잘못된 표현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 ②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③ 내가 상을 탔다니 믿겨지지 않아.
- ④ 그 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어요.
- ⑤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바탕으로 능동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탐구한 것이다. 올바르게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김기자 :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여섯 시쯤 ○○구 ○○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①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이 중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복과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교복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 가량 올랐으며, 운동화는 9%, 가방은 6.5%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③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 ①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② ②를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로 바꾸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③ ③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 ④ ④는 내용의 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 ⑤ ⑤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대전대신등학교 (대전)**

**4. 다음 중 동작상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상 :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 ② 진행상 : 지금쯤 고구마가 잘 익어 있겠다
- ③ 진행상 : 기차가 그때 막 들어오고 있었다
- ④ 완료상 : 영우가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완료상 : 승주는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나 조사가 아닌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주무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여쭙다)
- ㉢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체언(예 사장님)
- ㉣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체언(예 덕)

- ① ㉠, ㉡이 모두 쓰인 문장 : 아버님께서 아직 음식을 드신다.
- ②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어머니를 설득하여 치아를 교정해 드렸다.
- ③ ㉡, ㉢이 모두 쓰인 문장 : 동생은 사무실로 가서 그분을 직접 찾아뵈었다.
- ④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언니는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쭙어 보았다.
- ⑤ ㉢, ㉣이 모두 쓰인 문장 : 나는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기억한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우리는 내일 프랑스 여행을 간다.
- ㉡ 그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었다.
- ㉢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 ㉣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번 농사는 다 지었다.
- ㉤ 어제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

- ① ㉠ :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ㄴ'이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 ② ㉡ : '-었었-'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③ ㉢ : '-었-'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겠-'이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 : '-었-'은 발화시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 '-더-'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아버지 : 지수가 책상 정리를 ㉠하고 있구나.  
 지수 : 네, 바자회에 기부할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아버지 : 잘 했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구입한 책은 어디 있지?  
 지수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아버지 : 그렇구나.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지수 : 네, 조금 후에 저랑 같이 바자회에 ㉤갈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ㄴ'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대신고등학교 (대전)**

8.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를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옷이 잘 입어지실(☞ 이 옷을 잘 입으실) 거예요
- ② 텔레비전에 비치는(☞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 ③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예상됩니다.)
- ④ 이것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작된) 제품입니다
- ⑤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사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컨대, ‘안다’에 접미사 ‘-기-’가 결합한 ‘안기다’는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 캠핑 중에 모기에게 다리를 물렸다.  
 ㉡ : 엄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 ① ㉠ : 야외에서 직접 경관을 보니 그림의 구도가 쉽게 잡혔다.  
 ㉡ : 병이 낫자마자 아이에게 붓을 잡혔다.
- ② ㉠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 : 누나가 동생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③ ㉠ : 책상 위의 원고들이 바람에 날렸다.  
 ㉡ : 꼬마들이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 ④ ㉠ : 친구가 새 가방을 내게 보였다.  
 ㉡ : 투병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보였다.
- ⑤ ㉠ : 칭얼대는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혔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10. <보기>의 ㉠과 ㉡에서 밑줄 친 말의 의미를 비교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

일반적으로 ‘-았-/-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았-/-었-’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뻐다.  
 ㉡ 발목을 다쳤더니 너는 수학여행은 다 갔다.

<조건>

- ‘㉠의 ‘-았-’은 ~을(를) 의미함’의 형식으로 쓸 것.
- ‘㉡의 ‘-았-’은 ~처럼 표현함.’의 형식으로 쓸 것.

**석관고등학교 (서울)**

11. 높임 표현과 상대 높임 체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①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 하십시오체
- ② 아저씨, 강아지가 정말 귀여우세요. - 격식체
- ③ 교장선생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하오체
- ④ 정연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하계체
- ⑤ 네, 고객님. 이 제품 정말 잘 나가세요. - 해체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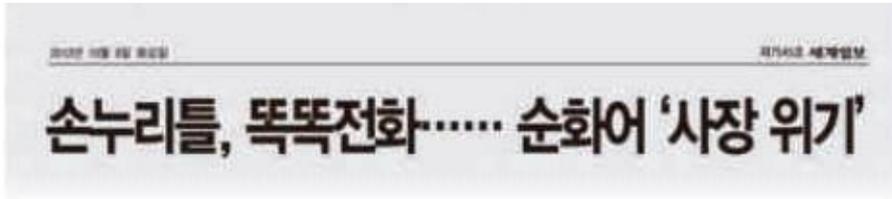
## “매체와 국어 사랑” 분석 명칭

### • 핵심 정리

<b>간체</b>	기사문
<b>성격</b>	, 설득적, 논리적
<b>제재</b>	순화어
<b>주제</b>	순화어 사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의도를 전달함.</li> <li>•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함.</li> <li>•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임.</li> <li>•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통계 자료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임.</li> <li>•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내용을 뒷받침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도움.</li> </ul>

## 모의신문 학습 활동

1. 다음 활동을 통해 신문 기사의 표제에 담긴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 보자.



(1) 다음 순화어를 자신에게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보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확인해 보자.

손누리틀(넷북) 똑똑전화(스마트폰)  
 댓글(리플) 누리꾼(네티즌)

• 익숙한 것: 댓글(리플), 누리꾼(네티즌) / • 익숙하지 않은 것: 리틀(넷북), 똑똑전화(스마트폰)

(2) (1)의 활동을 통해 이 기사에서 ‘손누리틀’, ‘똑똑전화’를 표제에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순화어를 제시하여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순화어 사장의 위기를 독자들에게 환기하기 위해서

(3) ‘사장 위기’라는 말의 뜻과 작은따옴표를 붙인 것 등을 고려하여 기사 작성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사장(死藏)’은 ‘사물 따위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지 않고 썩혀 둠’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에 작은따옴표를 붙인 것은 순화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그대로 썩을(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2. 다음 활동을 통해 부제에 담긴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 보자.



(1) 가 의 부제를 통해 이 기사에서 제시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고, ‘외면’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는지 추측해 보자.

신문의 부제는 표제에 덧붙여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이다. 따라서 (가)의 부제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순화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를 만들어 놓았으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외면’이라는 단어는 순화어가 쓰이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 시선이 함의되어 있다. 우선 순화어가 쓰이지 않는 원인이 언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면’하

는 주체는 언어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순화어가 쓰이지 않는 다른 원인이 국립국어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언어 사용자들이 선정한 어휘를 쓰지 않는 것은, 그 어휘가 언어 사용자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므로 순화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2) 다음을 바탕으로 나 에 담겨 있는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해 보자.

표현	담겨 있는 관점이나 의도
애써 발굴한	국립국어원이 '애써'서 '발굴'한 순화어가 외면받고 있으므로, 그 1차적인 원인이 언어 사용자에게 있다는 관점 혹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의식 조사선 국민 83% '사용 찬성'	국민의 83%가 순화어 사용에는 찬성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과 실천의 불일치를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볼 수 있음. 반면 국민들 대다수가 순화어 사용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국립국어원의 순화어 선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음.

(3) (1), (2)의 활동을 통해 이 기사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보자.

(1), (2)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를 선정하고 있고, 국민들도 의식적으로는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점의 원인은 우선 국민들이 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민들이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순화어 선정에서 찾고 있다.

3. 앞의 신문 기사에 인용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러한 내용을 인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인용	내용	목적
국립국어원 관계자의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화어를 만들었으나 순화어가 아닌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님.</li> <li>• 우리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화어가 외래어에 대해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사용이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함.</li> <li>• 국립국어원의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내용을 전하려함.</li> </ul>
전문가의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어 중에서 그냥 사용할 말과 순화할 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함.</li> <li>•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국어원의 순화 대상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도 동의한다는 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함.</li> <li>• 국립국어원의 순화어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li> </ul>

4. 다음과 같은 시각 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거두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활동 2에서 파악한 기사의 관점을 고려하여 말해 보자.



한글 자모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국민들이 한글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환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순화어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제 공함으로써 여태껏 선정된 순화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기사에서 다룬 순화어 사장의 위기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손누리틀, 똑똑전화.....순화어 '사장 위기'

오늘 566돌 한글날  
국립국어원 선정어 ㉡외면반아

㉢애써 발굴한 300여 개 통용 안 돼  
의식 조사선 국민 83% '사용 찬성'  
일부는 [표준국어대사전] 이미 등재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한 가족이 한글 자모를 새긴 조형 탑이 세워져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누리꾼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 순화어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순화어가 만들어졌지만 널리 쓰이는 단어는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순화 대상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웹 사이트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를 통해 만들어진 순화어는 342개에 달한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말다듬기 위원회'가 웹 사이트에서 누리꾼의 추천을 받아 순화 대상어(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모두 누리꾼의 투표로 정했지만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순화어 사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 2010년 '국민 언어 의식' 조사에서는 순화어 사용에 대해 조사대상의 83.1%가 찬성했다.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51.2%가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실생활에서 순화어의 쓰임은 많지 않다. 순화어를 만들기 시작한 2004년 선정된 댓글(리플), 누리꾼(네티즌), 참살이(웰빙) 등의 단어가 그나마 널리 알려져 순화어의 체면을 세워 줬다.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꾸림정보(콘텐츠), 그림말(이모티콘), 피부교감(스킨십) 등은 인터넷 어휘사전이나 몇몇 기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순화 대상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국어원이 '권장 순화어'로 뽑은 61개 단어 중 11개의 외래어 표현이 '표준국어대사전'(웹버전 포함)에 포함돼 있다. 사전에 실릴 정도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바꾼 셈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순화어를 만들었으니 순화어가 아닌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우리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순화어 [B]

테이크아웃 (takeout)	⇒	포장구매·포장판매
캘리그래피 (calligraphy)	⇒	멋글씨 또는 멋글씨예술
얼리어답터 (early adopter)	⇒	앞선사용자
벤치마킹 (benchmarking)	⇒	본따르기
스펙 (specification)	⇒	공인자격
리얼 버라이어티 (real variety)	⇒	생생예능

국립국어원, 2012

전문가들은 애써 발굴한 순화어가 사장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순화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학교 ○○○ 박사(국어학)는 "외래어가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그냥 사용할 말과 순화할 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순화어를 언론 매체 등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2012.10.09.), 오현태 기자

**구미고등학교 (경북)**

1. 기사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담긴 관점과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제 부분에 ㉠ 같은 예를 든 것은 언중들에게 익숙한 순화어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 ② ㉡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순화어 사장 위기에 책임이 순화어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어 사용자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③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전에 실릴 정도로 통용되는 말을 순화 대상으로 삼은 국립국어원에게 순화어 사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④ ㉣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순화어 사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독자로 하여금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의 말을 인용해 순화 대상어 선정 방식과 홍보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2. 윗글에 사용된 시각 자료 [A]와 [B]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를 통해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어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어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 ② [A]에서 순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순화어 사장 위기가 곧 극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③ [B]에서 독자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순화어의 개수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장식해 보며 순화어 사용에 소극적인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
- ④ [B]에서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순화어를 추가적으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기사에서 다룬 순화어 사장 위기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⑤ [A]와 [B]를 통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손누리틀, 똑똑전화…… 순화어 ‘사장 위기’

오늘 566돌 한글날 한글날국립국어원 선정어 외면받아

애써 발굴한 300여 개 통용 안 돼  
의식 조사선 국민 83% ‘사용 찬성’  
일부는 「표준국어대사전」 이미 등재

“나 이번에 손누리틀 새로 샀어.”  
“지난번에 똑똑전화도 사더니 역시 넌 앞선 사용자구나.”  
언뜻 보면 복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 같은 이 대화에는 ‘손누리틀(넷북)’, ‘똑똑전화(스마트폰)’, ‘앞선 사용자(열리어답터)’ 등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순화어 3개가 포함돼 있다.  
국립국어원이 누리꾼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 순화어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순화어가 만들어졌지만 널리 쓰이는 단어는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순화 대상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웹 사

이트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를 통해 만들어진 순화어는 342개에 달한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말다듬기 위원회'가 웹 사이트에서 누리꾼의 추천을 받아 순화 대상어(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모두 누리꾼의 투표로 정했지만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순화어 사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 2010년 '국민 언어 의식'조사에서는 순화어 사용에 대해 조사대상의 83.1%가 찬성했다.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51.2%가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실생활에서 순화어의 쓰임은 많지 않다. 순화어를 만들기 시작한 2004년 선정된 댓글(리플), 누리꾼(네티즌), 참살이(웰빙) 등의 단어가 그나마 널리 알려져 순화어의 체면을 세워 줬다.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꾸림정보(콘텐츠), 그림말(이모티콘), 피부교감(스킨십) 등은 인터넷 어휘사전이나 몇몇 기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순화 대상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국어원이 '권장 순화어'로 뽑은 61개 단어 중 11개의 외래어 표현이 '표준국어대사전'(웹버전 포함)에 포함돼 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순화어를 만들었으니 순화어가 아닌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우리 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써 발굴한 순화어가 사장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순화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학교 ○○○ 박사(국어학)는 "외래어가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그냥 사용할 말과 순화할 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순화어를 언론 매체 등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오현태 기자

**마포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순화어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순화어 홍보 과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순화어를 사용한 대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순화어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순화어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마포고등학교 (서울)**

4. 밑글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통계수치와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실제 순화어를 제시하여 내용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서론-본론-결론 3단 구성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⑤ 순화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시하고 있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5. 밑글 친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낯선 순화어를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 ② 낯선 순화어를 제시하면서 글의 주제를 재확인시킨다.
- ③ 낯선 순화어를 제시하면서 순화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④ 낯선 순화어를 제시하면서 순화어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 ⑤ 낯선 순화어를 제시하면서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6. 밑글 친 ㉡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국립국어원은 순화어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②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바꾼 것이 문제다.
- ③ 국어사전에 무분별하게 외래어가 유입되어 있어서 문제다.
- ④ 국립국어원은 외래어를 권장순화어로 더 많이 바꿔야 한다.
- ⑤ 11개의 외래어 표현을 더 정확한 의미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이번에 손누리틀 새로 샀어.”

“지난번에 똑똑전화도 사더니 역시 넌 앞선 사용자구나.”

언뜻 보면 북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 같은 이 대화에는 ‘손누리틀(넷북)’, ‘똑똑전화(스마트폰)’, ‘앞선 사용자(얼리어답터)’ 등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순화어 3개가 포함돼 있다.

국립국어원이 누리꾼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 순화어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순화어가 만들어졌지만 널리 쓰이는 단어는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순화 대상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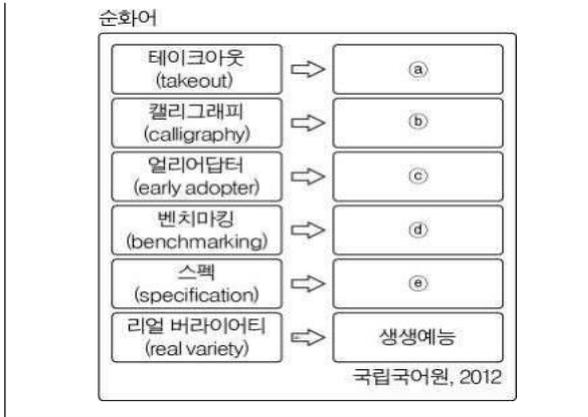
8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웹 사이트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를 통해 만들어진 순화어는 342개에 달한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말다듬기 위원회’가 웹 사이트에서 누리꾼의 추천을 받아 순화 대상어(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모두 누리꾼의 투표로 정했지만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순화어 사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 2010년 국민 언어 의식 조사에서는 순화어 사용에 대해 조사대상의 83.1%가 찬성했다.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도 51.2%가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실생활에서 순화어의 쓰임은 많지 않다. 순화어를 만들기 시작한 2004년 선정된 댓글(리플), 누리꾼(네티즌), 참살이(웰빙) 등의 단어가 그나마 널리 알려져 순화어의 체면을 세워 줬다.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꾸림정보(콘텐츠), 그림말(이모티콘), 피부교감(스킨십) 등은 인터넷 어휘 사전이나 몇몇 기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순화 대상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국어원이 ‘권장 순화어’로 꼽은 61개 단어 중 11개의 외래어 표현이 ‘표준국어대사전’(웹 버전 포함)에 포함돼 있다. 사전에 실릴 정도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바꾼 셈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순화어를 만들었으니 순화어가 아닌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우리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써 발굴한 순화어가 사장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순화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학교 ○○○ 박사(국어학)는 “외래어가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그냥 사용할 말과 순화할 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라면서 “순화어를 언론 매체 등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헤원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순화어 사장의 위기와 극복방안
- ② 실생활에서의 순화어 사용 실태
- ③ 순화어 선정의 세부 절차 및 조건
- ④ 순화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과정
- ⑤ 순화어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헤원여자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멋글씨 또는 멋글씨예술
- ② ㉡ : 포장구매·포장판매
- ③ ㉢ : 공인자격
- ④ ㉣ : 본따르기
- ⑤ ㉤ : 앞선사용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흥고등학교 (부산)**

9. 윗글은 신문기사의 일부분이다. 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표제와 이를 보충하는 부제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국립국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 ⑤ '손누리틀, 똑똑전화' 등의 익숙하지 않은 순화어를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원고등학교 (경기)**

10. 윗글과 같은 신문 매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문 매체는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거의 유일한 대중매체로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닌 매체였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그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지만, 뉴럴 링크라는 미래의 새로운 매체의 개발을 통해 곧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오늘날에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종이 신문 매체의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약해졌다.
- ③ 신문 기사는 표제, 부제, 본문 기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표제는 상당히 요약된 내용으로 독자의 눈을 집중시키고, 부제에서는 표제보다는 많은 글자를 통해 보다 많은 내용을 전하며, 본문 기사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두 풀어낸다.

**5-(2)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

1.④ 2.② 3.④ 4.① 5.㉠ 설망어검 ㉡ 말의 상처 6.③ 7.④ 8.② 9.③ 10.④ 11.① 12.줄임말, 외국어와 혼용된 말 13.④ 14.④ 15.② 16.(1) 닭을 잡아서 안주로 내어 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2) 여든에 능참봉을 하니 한 달에 거동이 스물아홉 번이라 17.① 18.⑤ 19. ① 발, ② 눈 20.④ 21.② 22.③ 23.② 24.⑤ 25. ㉠배수진을 치다. ㉡입이 무거운 ㉢동족방뇨 ㉣서과피지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1.③ 2.③ 3.④ 4.④ 5.⑤ 6.㉠ 반대, ㉡ 초가삼간 7.윗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보기>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8.① 9.③ 10.⑤ 11.⑤ 12. ④ 13.⑤ 14.④ 15.① 16.③ 17.⑤ 18.④ 19.② 20.도요새 21.큰 꿈 22.③ 23.⑤ 24.⑤ 25.② 26.③ 27.① 28. (1) 도요새, (2) 진정서 29.아버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어야 한다. / 병국: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30.④ 31.④ 32.③ 33.⑤ 34.① 35.④ 36.① 37.⑤ 38.① 39.④ 40.⑤ 41.도요새는 병국에게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고 지켜야 하는 생명이며 '나'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매개하는 존재이다. 42.① 43.⑤ 44.⑤ 45.④ 46.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6-(2)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1.③ 2.⑤ 3.② 4.① 5.② 6.⑤ 7.⑤ 8.(1) 가시, 생활의 짐 (2) 그리고, 모른다. 9.③ 10.⑤ 11.⑤ 12.① 13.선물 14.② 15.① 16.③ 17.② 18.⑤ 19. 용모나 육체적 장애, 가난한 환경,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 20.② 21.④ 22.⑤ 23.③ 24.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를 통해 글쓰이는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고 잘 다스려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② 26.② 27.⑤ 28.④ 29.⑤ 30.③ 31.가시로 인해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하지만,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하고,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며, 겸허하게 만들어 준다. 32.③ 33.③ 34.② 35.② 36.⑤ 37.③ 38.㉠감각적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인생의 소중함 ㉣고통의 깊이 39.① 40. ⑤

**7-(1) 차별받지 않을 권리**

1.① 2.② 3.① 4.(a) 의식, (b) 법률 5.④ 6.③ 7.② 8. ④ 9.② 10.④ 11.③ 12.③ 13.② 14.④ 15.② 16.② 17.③ 18. (ㄱ)차별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점 (ㄴ)차별받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저야한다는 것 19.④ 20.⑤ 21.⑤ 22.③ 23.① 24.③ 25.(1)시민 의식 개혁, (2)기존 법체계의 한계 절감 (3)새로운 법률 제정 (4)시민 의식 향상 (5)또다른 한계 절감

**7-(2)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1.① 2.⑤ 3.② 4.③ 5.㉠ 외규장각, ㉡ 다른 의궤,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6.② 7.⑤ 8.② 9.① 10.⑤ 11.② 12.② 13.조정 단계 / 협상이란, 양측이 서로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14. ①④ 15.③ 16.㉠ 외규장각 의궤, ㉡ 한국에 있는 다른 의궤 17.⑤ 18.④ 19.④ 20.② 21.(1) 동일한 의제에 대해 갈등이 있을 것, 둘 이상의 협상 당사자가 존재할 것 / (2)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한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동감했기 때문이다. 22.② 23. ④

**9-(1) 가시리 / 속미인곡**

1.⑤ 2.① 3.⑤ 4.⑤ 5. 가시는 듯 도셔 오소서 나는 6.② 7.② 8.④ 9.④ 10.⑤ 11.작가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어렵고, 남성의 목소리로는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12.반벽청등 13.④ 14.② 15.③ 16.⑤ 17.④ 18.① 19.② 20.(1) 선후면 아니 올세라 (2)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21.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우리다 22.③ 23.② 24.③ 25.③ 26.작가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을 그리는 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웠기에 화자를 이별한 여성으로 설정하여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27.④ 28.⑤ 29.④ 30.③ 31.③ 32.⑤ 33.화자가 임과 만나는 꿈을 꿀 수 없게 만든다. 34.④ 35.② 36.③ 37.④ 38.④ 39.① 40.② 41.⑤ 42.① 43.③ 44.② 45. '박옥경'-궁월, '구름'-간신 46. ② 47.⑤ 48.⑤ 49.③ 50.② 51.④ 52.⑤

**9-(2) 춘향전**

1.⑤ 2.② 3. (1) 백성의 고통 (2) 언어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 4.① 5.① 6.④ 7.③ 8.① 9.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 10.반어법 11.⑤ 12.④ 13.① 14.① 15.③ 16.③ 17.③ 18.④ 19.② 20.② 21.⑤ 22.③ 23.① 24.④ 25.③⑤ 26.② 27.⑤ 28.설화 (암행어사이야기, 열녀이야기), 판소리(춘향가), 고전 소설(춘향전), 신소설(옥중화) 29.④ 30.③ 31.⑤ 32.③ 33.③ 34.④ 35.④ 36.② 37.② 38.② 39.⑤ 40.㉠백성의 기름이요 ㉡원망 소리 높다 41.①④ 42.② 43.⑤ 44.공통점 : 언어유희가 사용됐다. / 차이점 : ㉠은 동음이의어, ㉡는 도치법을 사용했다. 45.① 46.장면의 극대화

**9-(3) 절정**

1.③ 2.④ 3.① 4.② 5.② 6.⑤ 7.⑤ 8.④ 9.⑤ 10.④ 11.③ 12.① 13.② 14. (A) 낙락장송 (B) 백설 15.③④ 16.① 17.⑤ 18.③ 19.③ 20.③ 21.⑤ 22.④ 23.③ 24.④ 25.② 26.③ 27.③ 28.⑤ 29.② 30.⑤ 31.① 32.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33.④ 34.④ 35.③ 36.② 37.⑤ 38.③ 39.① 40.㉡은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는 성삼문의 의지(다짐)을 의미한다.

**10-(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니다 → 3만원입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ㄴ-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④ 46.① 47.② 48.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③ 60.⑤ 61.③ 62.④

**10-(2) 매체와 국어 사용**

1.⑤ 2.④ 3.④ 4.④ 5.② 6.② 7.③ 8.④ 9.④ 10.① 11.② 12.③ 13.② 14.㉠의 "버스에서 모두 내리실게요."에서 '-르게요'는 '화자'가 자신의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러나 "버스에서 모두 내리실게요."에서 '내리는' 행위의 주체가 '청자'이므로 부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버스에서 모두 내려주세요."로 고쳐야 한다. 15.⑤ 16.①

- 끝 -

**5-(2)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

1.④

▶속담의 본래 의미는 그대로 두고 비유되는 대상을 오늘 날에 맞게 바꾸거나, 속담의 의미를 아예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구성하기도 한다.

2.②

▶안주로 닭을 잡아서 내놓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주인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돌려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자."라고 말함.

① 풍자적 표현은 없음. ③ 김 선생이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도 아니고 겸양어법을 사용한 것도 아님. ④ 김 선생은 자신의 의도를 간명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려 말함. ⑤ 주인은 무안함을 느꼈지만 감정이 상한 것은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ㄱ. 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ㄴ. 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 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3.④

▶손이 곱다는 표면적 의미로 사용되어 관용어가 아님.

① 미역국을 먹다: '시험에서 떨어지다', '직위에서 떨어지다', '퇴짜를 맞다' 등 ②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③ 목이 빠지다: 누군가를 애당게 기다리다 ⑤ 시치미를 떼다: 어떤 일을 하거나 알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

4.①

▶개발에 편자: 어울리지 않듯, 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않는다

8.②

▶금기어 - 완곡어 관계임

① 낮춤 - 높임 ③ 순우리말 - 한자어 ④ 은어 - 본말 ⑤ 외래어 - 우리말

10.④

① 입 밖에 내다니: 관용 표현 ② 겸양 어법 ③ 화장실에서 뒤보고: 완곡 어법 ⑤ 발을 구르며: 관용 표현

11.①

㉠ 관용 표현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산물임. ㉡ 현대 사회에 맞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이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13.④

▶㉢ : 절에는 용변 보는 곳을 '해우소'라고 하는데, 이를 '화장실'을 '해우소'로 바꾸어 부르는 것.

14.④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 낙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적절치 않음.

15.②

▶'다 된 죽에 코 풀기'가 '다 된 밥에 재 뿌리기'의 변형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별도의 속담임.

17.①

▶나간 머슴이 일은 잘했다 - 사람은 무엇이든지 지나간 것, 잃은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전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함

20.④

▶㉠은 기존의 사회적 약속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속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인데, 언어의 사회성이 이러한 시도에 장애가 된다.

21.②

▶줄임말이나 이모티콘과 같은 것들도 담화 관습에 해당함.

22.③

▶나이든 사람들은 긴 문장을 선호함.

23.②

▶오지랖이 넓다: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24.⑤

① 이러쿵저러쿵 시비가 길어지면 말다툼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경계 ③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④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 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됨.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1.③

▶(다)는 인물 간(나 vs 노무과장, 젊은이)의 갈등 상황을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성찰에 대해 알아보자! (★★)**

1)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2) 대개 화자의 반성, 성찰, 깨달음 등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 낸다.

3)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4)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 넣어둬, 패턴 공략 ◀**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2.③

▶ 과거의 삶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다.

3.④

▶ ⊕ : 공장 굴뚝에서 가스를 태우는 불꽃을 뱀이나 악귀의 혀처럼 묘사함으로써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냄

**▶ 넣어둬, 패턴 공략 ◀**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감각적인 묘사**

산문: 주로 수사법과 관련됨

운문: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됨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반어법 vs 역설법 (★★★)**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4.④

▶ 문제 해결 방안은 없음.

5.⑤

▶ 노무과장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 새나 짐승이 죽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와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것은 ⑤임.

8.①

▶ ⊖ : 물리적 거리감이 아닌, 심리적 거리감이 더해지는 것임.

9.③

▶ ‘노무과장’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님.

10.⑤

▶ (가)의 ‘도요새’와 <보기>의 ‘새’는 모두 서술자 혹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라, 서술자 혹은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 대상임.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주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해제: 이 시는 1980년대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화면 속에 나오는 새 떼의 비상을 보며, 자신도 이 상황으로부터 떠나고 싶지만 결국 떠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 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ㄴ.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은 화자의 심리를 우회적(→돌려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떨떨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꾀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11.⑤

▶ 제시된 부분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해서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분석하여 서술하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임.

12.④

▶ ④와 ‘병국’의 정서 및 태도는 산업 개발로 인해 자연이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것을 비판함.

**◆주제 저장소◆**

- ① <산이 날 에워싸고>: 자연친화를 통한 초월적 삶에 대한 동경
- ② <남으로 창을 내겠소>: 전원 생활을 통한 달관적인 삶의 추구
- ③ <고향>: 고향 상실과 인생무상
- ④ <성북동 비둘기>: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
- ⑤ <벌레길>: 벌레 먹은 잎을 보며 자연의 일부로서의 삶을 깨달음.

13.㉔

▶상대의 말을 긍정(그래야지요)한 후 자신의 의도(용서를 구함)를 드러내고 있다.

▶응, 헛갈리지 마!◀

**모호(애매) vs 중의 vs 모순 (★★)**

- \*모호(애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14.㉔

▶노무과장은 사업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만을 고집하기에 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 할 것임.

15.㉑

▶㉑과 조홍(早紅)같은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임.

◆주제 저장소◆

- ① <반중(盤中) 조홍(早紅)감미>: 효심(孝心)
- ② <산(山)은 넷 산(山)이로되>: 인생무상, 무정한 임에 대한 그리움
- ③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국화 예찬
- ④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우국충정
- ⑤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우국충절

16.㉓

▶㉓ : 병국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보아 젊은이가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음.

18.㉔

▶서정적인 배경 묘사를 통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소설 구성의 분류 (★)**

- 1)중심 사건의 수와 형태에 따라
  - ㄱ.단일 구성: 중심 사건 1개
  - ㄴ.복합 구성: 중심 사건 2개 이상
  - ㄷ.액자식 구성: (겉 이야기+속 이야기)
  - ㄹ.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통일성을 갖도록 모아서 전개.
- 2)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 ㄱ.평면적 구성(순행):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진행됨
  - ㄴ.입체적 구성(역순행):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진행됨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넣어둬, 패턴 공략◀

문학 작품에서 <환상적 분위기>는 고전 소설의 비현실적인

장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초현실적, 비현실적, 기이한, 신이한, 환상적, 도술적>은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22.㉓

▶㉓ : 허생이 세상에서 능력을 시험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

23.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가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상관 없음.

24.㉔

▶㉔는 대상에 대해 존중하지만 나머지 하대함.

25.㉔

▶㉔: '나'가 체험한 심리적 거리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6.㉓

▶특정 시간대의 상황만이 아닌, 과거-현재의 상황을 서술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소설의 시점 (★★★)**

- ㄱ.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작품 안에 존재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 ㄴ.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작품 밖에 존재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의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성격, 심리)을 서술할수록 독자는 그대로 수용↑, 상상력 제한↑

\*서술자 내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 외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27.㉑

▶(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은 보여주기 방식으로 드러난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구체적 서술 vs 요약적 서술 (★★★)**

- ㄱ.구체적 서술: 인물의 대화, 상황 및 사건 등의 묘사
- ㄴ.요약적 서술: 인물의 내면,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 (서술자 직접 전달)

요약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른 반면 구체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이야기의 흐름이 지연된다.

30.㉔

▶㉑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서술됨. ㉔ 장면이 아닌 각 부마다 서술자가 바뀜. ㉓ ㉔ '나'는 1인칭 시점임을 드러

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전지적 작가 시점 (★)**

작가가 등장 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 까지도 **분석하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설명 및 해석한다.

33.⑤

▶B 병국이 행동의 은폐된 원인 추리와는 상관 없음.

36.①

▶일제 식민지 시기와는 상관없음.

37.⑤

▶(다)는 주로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39.④

▶병국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지만, 병국의 선처를 위해 타인(윤 소령)을 의식하며 일부러 화를 내고 있다.

42.①

▶<나(아버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으로, 제시된 부분은 동진강 하루를 찾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43.⑤

▶'도요새'가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건 아님.

44.⑤

▶㉔ :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땅.

45.④

▶'병국'이는 기선을 보는 것이 꿈이었다.

**6-(2) 내 유년의 울타리는 땀자나무였다**

1.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은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전문가(권위자)의 견해 인용→신뢰성 ↑

**다양한 감각적 심상**

:다양한 감각적 심상의 사용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각적 심상만 여러 시구에 사용되었다면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각각 하나씩만 사용되더라도 최소한 (시각, 후각 등) 2가지 종류 이상의 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어야 한다.

2.⑤

▶㉔ : 누구나 유년기를 벗어나면 가시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

4.①

▶윗글과 ①은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나타냄.

◆주제 저장소◆

- ① <낙화>: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 ② <저녁에>: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내면 성찰
- ③ <꽃>: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 ④ <유리창>: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 ⑤ <남으로 창을 내겠소>: 전원 생활을 통한 달관적인 삶의 추구

5.②

▶수필로써 글쓴이의 직접 서술을 통해 내용을 전개한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6.⑤

▶㉔가 많으면 많을수록 ㉔ 또한 커진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성찰에 대해 알아보자! (★★)**

- 1)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 2) 대개 화자의 반성, 성찰, 깨달음 등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 낸다.
- 3)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4)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